

# 은성수號 4일 출범… 輸銀 등 국책銀 ‘도미노인사’ 촉각

〈금융위원장 후보자〉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개최  
은성수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  
수은행장 후보에 유광열·최희남

김도진 기업銀행장 연말 임기만료  
후보에 정은보·윤종원 등 거론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르면 오는 4일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공석인 수출입은행장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기업은행장까지 국책은행의 후속인사에 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후보자가 모두 현직에 있어 수출입은행장 인선을 시작으로 연쇄인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다음날인 3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이르면 4일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

당장 금융권에서 관심이 쏠리는 곳은

수출입은행이다. 은 후보자까지 3명의 수출입은행장이 금융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경제관료 출신 사이에선 수출입은행장 자리가 요직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획재정부 출신

이 수출입은행장 자리에 오를 것으로

판단한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진

〈수출입은행장 후보자〉	
구분	
유광열	최희남
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2011)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2014)
제17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2016)	세계은행그룹 상임이사(2016)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2017)	국제통화기금 IMF 상임이사(2016)

행돼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1976년 수출입은행이 설립된 이후 총 20명의 은행장 중 17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장 후보자로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등 2명이 물망에 오른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유수석부원장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2011년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장장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협력국장을 지냈

다. 2014년부터는 금융위에서 금융정보 분석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후 현재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맡고 있다. 국제금융에 밝고, 금융위와 금감원을 두루 거친 금융통이라는 평이 나온다.

최 사장은 제29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국제금융협력국장,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 관리관과 세계은행(WB) 이사, 국제통

화기금(IMF) 이사를 지냈다. 최 사장은 오랫동안 국제금융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국제금융과 거시경제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차기 기업은행장에도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거론되는 관료 출신 후보자로는 수출입은행장에 거론된 2명과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의 이름이 나온다. 다만 기업은행의 차기 은행장으로는 내부승진설과 관료임명설 등 다양한 가능성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이 해외에서 오는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국책은행 수장자리에 관료 출신 전문가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수은 행장 결정까지 한 달 남짓 걸린 후, 금융권 내 연쇄적인 인사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metroseoul.co.kr

## 소재·부품·장비기업에 5조 지원

한은, 내달 금융중개지원대출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 수출을 촉진하고 여름이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기업에 총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국내 설비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5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제도다. 한은이 정한 지원대상과 대출 요건에 맞춰 은행이 자체 자금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면 추후 자금을 지원하는 방

식이다.

한은은 이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설비투자 분야(3조원) ▲소재·부품·장비기업(1조원) ▲수출기업(1조원) 등에 5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금리는 0.5%로 적용한다.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성장 동력·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선 설비투자자금 지원 비율을 2배로 우대해 준다.

또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수출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을 위해 은행의 무역금융 순증액 100%를 지원한다.

/김희주 기자 hj89@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경제여건 등 점검 부처와 협의  
39.8% 국가채무비율 우려말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그는 또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까지 올라간 것과 관련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재작년과 작년에 조과 세수가 나면서 국채 부담 등을 28조원 줄여서 재정 여건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은 (국가채무비율이) 110%를 넘고 일본은 220%를 넘는다”며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절대규모로 봤을 때 안정적이고 탄탄하다”면서 “국가 채무가 절대규모에서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한

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를 망하는 입장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점검해 봤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부품이나 소재를 조달하지 못해 생산에서 차질을 빚어 피해를 본 기업은 없다”며 “조속히 외교적 대화로 매듭지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여건을 볼 때 일본이 지금보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언제 매듭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소통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서 제시한 올해 성장을 전망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다만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입장차 계속땐 법원 ‘진흙탕 싸움’ 우려

》》 1면 ‘협업 아쉬운 판에…’서 계속

분리막은 배터리에서 전기를 만드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해 이온만 통과시키는 소재로, 배터리의 안전성을 결정짓는다. 배터리 재료비 원가의 20%를 차지해 양극재 다음으로 고가다. SK 이노베이션은 이 분리막을 생산하지만 LG화학은 일본 업체들로부터 이를 수입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시행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국내 경쟁사(LG화학)에 분리막을 공급할 수 있다’며 화해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LG 측에서 지난 4월 이후 별다른 입장장을 내놓지 않자 SK이노베이션이 강공에 나선 것이다. 두 회사가 입장차를 좁힐지 못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기화 될 경우 양사의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

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로펌에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매달 50억원으로 연간으로 계산하면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법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 수출 부진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간판 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소송은 두 회사 모두에게 되지 않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며 “추가 제소할 경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측은 1000억원 이상의 비용 발생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저신용자에 최대 700만원 ‘햇살론 17’

2일부터 6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최대 700만원까지 빌려주는 ‘햇살론 17’이 출시된다. 금리는 연 17.9%로, 성실 상환시 금리도 매년 1~2.5% 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 이용의 문턱이 높아 대부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자를 위해 마련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시중은행과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6등급 이하

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17은 단일금리로 대출 한도는 700만원이다. 금리는 연 17.9%로,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면 매년 1~2.5% 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대출 상환을 마쳤거나 700만원 한도가 남았다면 횟수 제한 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

로, 3년 또는 5년 중 원하는 만기를 선택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 된다.

대상 기준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